

# “고기 비싸서 못 사 먹어요”...서민 식탁은 ‘폭발’

### 이달 삼겹살 100g에 2660원으로 3월보다 20% 급등 닭고기도 덩달아 올라...구제역 발생에 한우값도 들쭉

“돼지고기도 오르고, 닭고기도 가격이 올랐네요.”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앞에서 만난 주부 김모(여·39)씨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 부담스러운데 최근 고깃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4살 아들을 뒀다는 김씨는 한창 클 자녀를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고기 반찬을 마련하는 탓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값비싼 한우는 지출 부담이 커 닭고기를 자주 사 먹고 있는데, 닭값마저 연일 올라 뭘 사서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두어 달 전 1kg에 2만5000원 정도에 샀던 삼겹살이 이제 3만원 수준에 육박한다”며 “삼겹살뿐만 아니라 목살, 갈비,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는 물론 닭고기까지 오르지 않는 육류가 없다”고 말했다.

육류가격이 들쭉이면서 서민들의 ‘식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올라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던 장바구니 물가가 육류 가격 오름세로 더 크게 휘청이는 모습이다.

특히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왔던 돼지고기와 닭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구제역 확산으로 최근 한우 가격마저 들쭉이고 있다.

2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가 가격은 2660원으로 전달(2324원)보다 14.45%나 올랐다. 두 달 전인 지난 3월(2224원)보다는 무려 20% 가까이 급등한 가격이다.

돼지 목살 가격도 두 달 전 2023원에서 최근 2476원으로 22.4% 올랐고, 갈비는 1309원에서 1393원으로 6.4% 증가했다. 앞다리살도 1260원에서 1318원으로 4.6% 오르는 등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오르고 있는 추세다.

돼지고기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도매가격의 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돼지고기 1kg의 도매가격은 6206원으로 한 달 전 5479원보다 13.2%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은 국제적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를 가는 가정이 늘어나

는 등 전반적인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게 가격 상승에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지난해 전남 농가 1곳당 사료비는 전년보다 19.1%가 증가할 정도로 사료값이 급등했는데 이 기조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육류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닭고기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닭고기(육계) 1kg당 소비자가 가격은 이날 기준 6480원으로 한 달 전 6137원보다 5.9% 올랐다. 두 달 전(6069원)에 비해서는 6.8% 오른 것이다.

닭고기는 병아리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도매가격 역시 1년 전보다 14.8% 상승한 1kg 당 4079원을 기록하는 중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한우 가격도 들쭉이고 있다. 한우의 도매가격도 상승했는데, 서민들은 도매가격 상승이 곧 소매가격 인상

으로 이어질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21일 한우 1등급의 1kg당 1만4846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7일 가격인 1만3317보다 11.48%(1529원) 증가했다. 구제역 발생 10일 만에 10% 넘게 가격이 치솟은 셈이다.

대형마트 판매가격도 설도(뒷다리살) 기준 구제역 발생 전(1~7일) 4302원에서 최근 5572원으로 29.5%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주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방역에 주력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할 경우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박종택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 제공>

## 전남농협, 이성희 중앙회 회장 전남 방문 현장회의

### 농·축협 상생·협력체계 강화...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결의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최근 농협 전남본부를 방문해 전남지역 관내 농·축협과의 상생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업현장 건의사항을 듣는 등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이성희 중앙회장과 박종택 농협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전남 관내 조합장 및 시군지부장, 중앙본부 집행간부 및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요 경제·경영이슈와 협회에 미치는 영

향, 100년 농촌운동 성과 및 디지털혁신 성과 공유, 지역본부 업무보고, 조합장과의 대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희 중앙회장은 “유통·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조합장들이 평소 농업현장에서 느껴오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

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농업 현장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성희 중앙회장은 “농촌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각종 농업재해 발생으로 농업·농촌 현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는 조합장들과 전 임직원 덕분에 버티고 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식당 창업에 7개월 걸린다

### 한식진흥원, 1500곳 실태조사...창업 자금 평균 1억

한식 식당을 창업할 때 창업비용은 약 1억원이 들고, 문을 열기까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10~11월 전국 한식 음식점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한식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식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장소를 선정하고 점포 계약, 인테리어 등 과정은 평균 6.9개월이 소요됐다.

보증금과 집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필요한 창업 자금은 평균 1억436만원이었다.

1500곳 중 본인 자본으로 한식당을 창업한다고 답한 비율은 6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권 대출(23.9%), 가족·지인에게서 자금 조달(6.9%) 등 순이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상권 및 경쟁업체 분석’(42.9%)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메뉴 선정’(26.2%), ‘창업 자금 확보·유통’(11.0%) 등이었다.

한식음식점을 차린 이유는 ‘다른 업종보다 운영·관리가 쉬운 것 같아서’(24.3%), ‘한식 산업 시장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서’(21.3%), ‘관련 경험이 있어서’(16.6%) 등으로 조사됐다.

조리 관련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식음식점이 68.1%에 달했다. 전문 인력이 있다는 업체는 31.9% 수준이었다.

한식음식점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식재료 수급 및 가격 안정’(23.2%)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 ‘전문인력 공급·양성’(17.2%), ‘세계 지원’(14.8%)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 쌀과자 맛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9일 베트남 최대 서점 브랜드 ‘파하사’(FAHASA)에서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산 쌀 가공식품과 유제품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호치민 시내 중심가 서점 5곳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쌀과자와 어린이 요거트 등을 선보이고 증정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aT 제공>



##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아파트 공급

### 59~84㎡ 1490세대 중 1064세대...대형 쇼핑몰 등 인프라 풍부

부영그룹(시공 부영주택)은 전남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2단지 총 1490세대 대단지로, 새 아파트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부영그룹의 설명이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 규모다. 이 중 1회차 1064세대(1단지 570세대·2단지 494세대)를 임대한다.

완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다.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자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테크고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 통학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쇼핑몰인 LP스퀘어 광양점, NC백화점과 광양농협로컬푸드직매장, 광양5일시장 등 도 가까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인근 남해고속도로 광양 IC가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광양제철소,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황금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울촌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다는 평가다.

한편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견본주택은 전남 광양시 광양목성리 500-2(광양북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오늘월 환전이벤트’...최대 70% 우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환전 시 환율을 최대 70% 우대하는 ‘오늘월 해외여행 환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달러, 유로화, 엔화 3개 통화에 대해 환전 스프레드의 70% 환율 우대가 제공된다. 환전 가능한 한도는 개인당 통화별로 1000달러, 1000유로, 10만엔이다.

환전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모바일웹뱅킹에서 환전신청 후 지정한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과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오늘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중흥그룹, 안전·보건 ISO45001 인증 획득

중흥그룹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ISO45001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실용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곳에 부여된다.

두 회사는 인증 획득을 위해 3개월여의 심사와 평가 과정을 거쳤다. 국제적으로 안전 및 보건 시스템을 인정받은 만큼 수준 높은 현장 안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중흥그룹을 기대했다.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중흥이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은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7.55(+10.47)
↑ 코스닥	859.16(+7.12)
↑ 금리(국고채 3년)	3.373(+0.052)
↓ 환율(USD)	1312.70(-5.40)